DEGURR MARKET CLOSE · 데구르르의 마감시황

2026.08.31 (월) 장마감 · 8월 마지막 거래일 | 0831 | 장중 −3.55% → +0.46% · 저점에서 +272p V자 | 3주체 전부 매도 — 산 주체는 기타법인뿐 | 기타법인 8일 연속 · 누적 +11.73조

아침의 −3.55%를 오후에 지웠다 — 그런데 지수를 들어올린 손은 자사주 하나뿐이었다

워시의 매파 발언(9월 인상 확률 38→57%)과 미·이란 군사 충돌 재개가 겹치며 코스피는 −175p 갭다운으로 열고 6,547.76까지 밀렸다. 그러나 미 장기금리가 잠잠고(30Y +0.2bp), SK온의 9GWh ESS 계약과 내일 반도체 수출 기대가 오후장을 뒤집었다 — 갭 −175p를 장중 +206p로 역전한 세 번째이자 최대의 V자. 문제는 그 V의 매수 주체다: 개인·외인·기관이 합쳐 −1.58조를 팔았고, 기타법인(자사주 추정) 홀로 +1.58조를 샀다. 상승일인데 하락 종목이 490개 — 시장 전체가 아니라 반도체·2차전지로 자금이 압축된 하루.

ⓒ 본 콘텐츠의 제작 및 모든 권리는 똥발 주인장에게 있습니다.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사·전재·재배포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.

코스피	코스닥	거래대금 (합산)	기타법인 · 당일 핵심	원/달러
6,820.02	834.29	32.93조	+1조5,773억	1,368.60
▲31.14 (+0.46%) · 저점 6,547.76	▼4.12 (−0.49%) · 저점 805.14	전일비 +23.7% · 코스피 27.54조 (25조 회복 ✓)	8일 연속 — 3주체 −1조5,777억의 거울상	▼3.9원 · 장중 1,370 하회 (1년 1개월 만 최저)

※ 미수신 명시: 수급 브리핑 마감판(비차익 매도) — 리포트는 "비차익 매도 대량 출회"로 정성 언급만. HTS [2781]·[0785] 종목별·예탁금/신용·코스닥 급등주(에스피소프트·쿠콘) 익일 등락 미수신 — 수신 시 소급 갱신. 파생 누적·VKOSPI는 리포트 차트 판독 근사. 지수·수급·거래대금·OHLC는 장마감 확정치(FnGuide 지수추이).

MONEY FLOW · 나의 중심은 항상 돈의 흐름

오늘 지수를 산 주체는 하나였다 — 개인·외인·기관이 판 1.58조를 자사주가 그대로 받았다

3주체 합산 −1조5,777억 vs 기타법인 +1조5,773억: 4억 차이의 거울상. 외인은 비차익(바스켓)으로 지수 비중을 줄였고 기관은 전력기기·원전에서 차익을 냈는데, 그 물량을 받은 것은 삼성전자·SK하이닉스의 자사주였다. 파생에서는 외인이 콜 매도를 청산하고 풋을 줄여 '칼라 방어'를 풀었다 — 현물은 줄이고 파생은 낙관 쪽.

① 외국인 — 비차익 매도 = 지수 비중 축소
코스피 −6,402억 (7일 중 6일 매도)
운송장비(현대차·기아)·일부 IT서비스 매수 vs 전기전자·금융·보험·건설·화학·금속 매도 — 리포트 "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대량 출회": 종목 훼손이 아닌 금리 불확실성 대응 바스켓 축소

② 기관 — 긴 듀레이션에서 차익
코스피 −7,922억 (사모 −5,231·금투 −2,465)
화학·유통·음식료 일부 매수 vs 전기전자·원전·전력기기 차익 실현. 단 2차전지에는 기관 자금 유입(엘앤에프·포스코퓨처엠) — 안에서의 자리바꿈

③ 자사주 (기타법인) — 8일 연속 · 유일한 매수 주체
+1조5,773억 · 누적 +11.73조
투톱 하단을 받쳐 오후 반전의 출발점. 오늘은 '완충기'를 넘어 '유일한 엔진' — 자사주가 없었다면 수급상 하락일이었다

돈이 빠진 곳 ▼
- **전력기기·원전** — 두산에너빌리티 −6.46% · 효성중공업 −6.03% · HD현대일렉트릭 −4.05% · LS ELECTRIC −3.26% (금리 → 먼 미래 이익 할인 확대)
- **방산** 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−4.75% (K9 스페인 계약에도)
- **바이오 일부** — 알테오젠 −3.91% (키트루다SC 첫 마일스톤에도) · HLB −1.11%
- **금융·보험** — 삼성화재 −3.20% · 삼성생명 −1.29% · 신한지주 −0.73% (외인 매도 업종)
- **플랫폼** — NAVER −1.59% · 카카오 −1.23%

돈이 들어간 곳 ▲
- **2차전지 (ESS 축)** — 엘앤에프 +8.38% · 포스코퓨처엠 +7.62% · SK이노베이션 +7.18% · 삼성SDI +1.22% (SK온 9GWh LFP 계약, 기관 유입)
- **반도체 부품** — LG전자 +7.44% · LG이노텍 +5.07% · 삼성전기 +2.60% (사흘째)
- **반도체 대형주** — SK하이닉스 +1.27% · 삼성전자 +1.17% · SK스퀘어 +0.88% (자사주 + 내일 수출 기대)
- **자동차** — 기아 +2.03% · 현대차 +0.75% (외인 매수 상위, 소각 실행일)
- **삼성바이오로직스** +2.15% — 유증 급락 하루 만 되돌림 (증자 규모 약 3.9조로 보도)

SECTION 00

전일 대비 —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나빠졌나

🟢 좋아진 것
- **6,800 회복 + 대금 25조 회복** — 6,820.02 · 코스피 27.54조(+27.3%): 지난 판 조건 ②의 종가·대금 동시 충족
- **저점 높이기 3단** — 6,400.81(8/19) → 6,408.82(8/25) → **6,547.76(8/31)**: 급락 시도가 매번 더 높은 곳에서 멈춤
- **V자 3연속 확대** — 갭 −92.6→−161.0→−175.3을 장중 +153.0→+206.8→+206.4가 역전: 받는 손이 커지는 중
- **코스피 5일 이평 상승 전환** — 23.55 → 23.83조: 8월 들어 첫 우상향 (판정 기준 충족)
- **원화 강세 지속** — 1,368.60원, 장중 1,370 하회 1년 1개월 만 최저: 미 금리·달러 상승에도 유지
- **ESS 수주 하루 두 건** — SK온 9GWh(장중) + 삼성SDI 선그로우(장후): EV→ESS 성장축 이동의 첫 실증
- **미 장기금리 잠잠** — 워시 매파에도 30Y +0.2bp: V자의 연료
- **8월 월간 마감** — 코스피 +3.40% · 코스닥 +15.91%

🔴 나빠진 것
- **매수 주체의 단일화** — 개인·외인·기관 전부 매도, 기타법인 홀로 매수: 자사주 의존이 '완충'에서 '유일 엔진'으로
- **breadth 366/490 — 상승일 하락 우위** — "지수≠시장" 5번째, 장중 하락 종목 1,800개 안팎: 순환매 종료 → 반도체·2차전지 압축 장세
- **잭슨홀 매파 확정** — 9월 인상 확률 38.4→57%(동결 우세 → 인상 우세 역전), 미 2Y +11.8bp·10Y−2Y 37.2bp 재역전 경계
- **중동 군사 충돌 재개** — 미, 이란 라라크섬 타격 +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보복: 한 달여 만. WTI 85弗 재상회
- **긴 듀레이션 섹터 −6%** — 전력기기·원전: 미 외국산 전력망 장비 규제(중장기 호재)에도 금리 할인이 먼저
- **코스닥 대금 비중 16.4%** — 5.38조로 늘었지만 비중은 18.7→16.4% 후퇴 (대형주 압축의 반작용)
- **외인 현물 매도 지속** — 7거래일 중 6일 매도, 오늘은 비차익 바스켓

한 줄 판정: 기술적으로는 좋아졌고(저점 높이기·V자·대금 회복·5일 이평 전환), 구조적으로는 나빠졌다(매수 주체 하나·breadth 압축). 오늘의 +0.46%는 시장이 산 게 아니라 자사주가 받친 지수다 — "자사주 없이도 반도체 대형주가 버티는지"가 내일부터의 질문이며, 그 첫 시험이 내일 아침 8월 반도체 수출 숫자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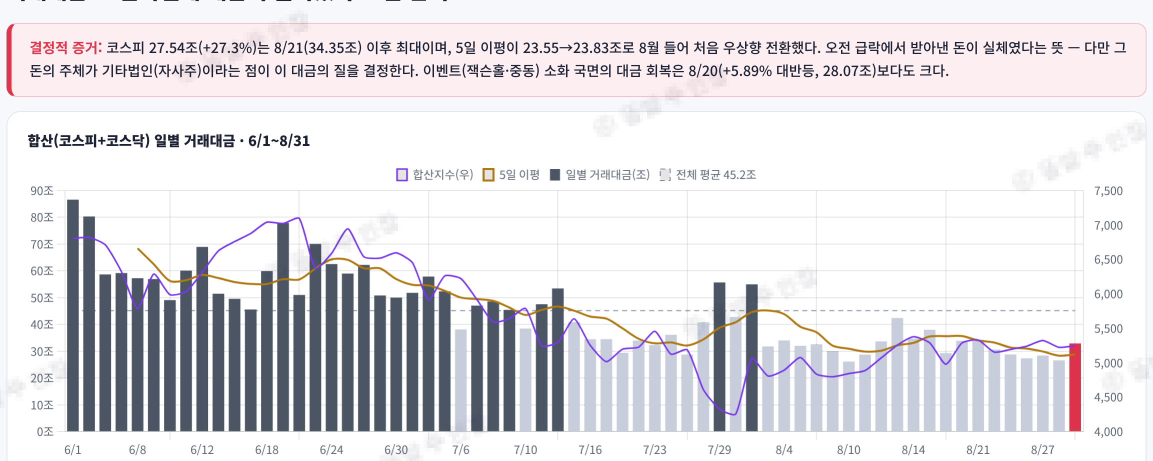
📋 **전일(8/28) 관전 포인트 판정**
① 잭슨홀 채점 — 매파 🔴 "물가 아직 충분히 안 꺾여" → 9월 인상 확률 38.4→57%. 단 장기금리는 잠잠(30Y +0.2bp) — 3분기 중 '힌트 매파적' 실현이나 시장 반응은 단기물에 집중, 장기 잠잠이 국내 V자를 허용
② 월요일 6,800 회복 — 충족 🟢 종가 6,820.02 · 대금 27.54조(25조 조건 ✓). 갭은 −175p 하락 갭이었으나 종가·대금 두 조건 모두 통과
③ 외인 매도 성격 — 바스켓 🟡 리포트 "비차익 매도 대량 출회" = 오늘은 지수 비중 축소형. 환율 1,368.6(1,370 하회) = '환전 이탈 아님' 유지. 8/26~28 소급 수치는 여전히 미수신
④ 순환매 지속 + 급등주 과속 검증 — 중단 🔴 순환매 → 압축(반도체·2차전지 집중, breadth 366/490). 화장품·핀테크 익일 수급은 자료 미수신 ⚪
⑤ 8/31 현대차 소각 — 수급 반응 🟢 현대차 +0.75%·기아 +2.03% 외인 매수 상위 진입. 실행 공시 확인은 대기
⑥ 기타법인 8일째 — 지속 🟢 +1조5,773억, 누적 +11.73조 — 자사주 공백 리듬 미발동
⑦ [이월] 코스닥 대금 5조·비중 20% — 반 충족 🟡 5.38조 ✓ / 비중 16.4% ✗ · 비차익·[0785]·예탁금 소급 ⚪ · 8월 물가·GDP 9월 초 대기

SECTION 01

거래대금 — 급락일에 대금이 돌아왔다: 6일 만의 25조

결정적 증거: 코스피 27.54조(+27.3%)는 8/21(34.35조) 이후 최대이며, 5일 이평이 23.55→23.83조로 8월 들어 처음 우상향 전환했다. 오전 급락에서 받아낸 돈이 실재였다는 뜻 — 다만 그 돈의 주체가 기타법인(자사주)이라는 점이 이 대금의 질을 결정한다. 이벤트(잭슨홀·중동) 소화 국면의 대금 회복은 8/20(+5.89% 대반등, 28.07조)보다도 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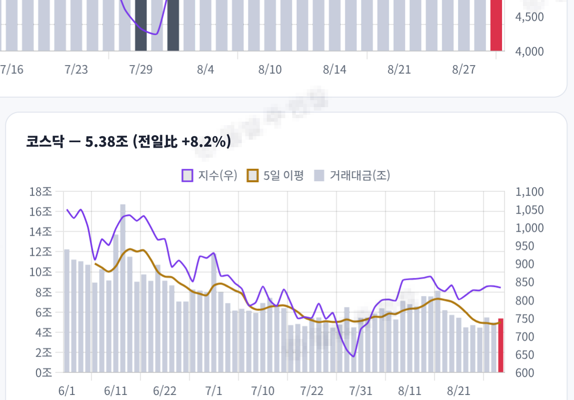
합산(코스피+코스닥) 일별 거래대금 · 6/1~8/31



코스피 — 27.54조 (전일比 +27.3%)

8월 평균 25.8조를 7거래일 만에 상회. V자 반등에 대금이 동반된 첫 사례 — 8/25 V자(28.81조, 감소)와 8/26(27.38조)은 '얇은 저점'이었고, 오늘은 '두꺼운 저점'. 다음 판정선: 5일 이평 우상향 유지(내일 24조 이상이면 지속).

코스닥 — 5.38조 (전일比 +8.2%)



절대 금액은 5조를 회복했으나 비중은 16.4%로 8/25~26 수준(16.3~16.4%)까지 후퇴 — 대형주로의 압축이 코스닥 비중을 다시 눌렀다. 장 후반 PCB·소부장·2차전지 저가 매수로 낙폭을 축소했지만, 8/27~28의 '코스닥 자력의 날' 흐름은 끊겼다.

구간	합산 평균	코스피	코스닥	코스닥 비중
6월	60.4조	50.3조	10.0조	16.6%
7월	43.0조	36.9조	6.1조	14.2%
8월 (20거래일, 확정)	31.8조	25.8조	6.0조	18.9%
8/31 (당일)	32.93조 +23.7%	27.54조 +27.3%	5.38조 +8.2%	16.4%

전체 평균 45.2조 · 기간 최저 8/10 26.14조 · 5일 이평: 합산 28.83조(↑) / 코스피 23.83조(↑ 첫 전환) / 코스닥 5.00조(↑) · 8월 월간 대금: 코스피 516.9조(7월 811.3조 대비 −36%) — 월간 +3.4% 상승을 36% 줄어든 대금으로 만든 달

SECTION 02

수급 — 거울상: 3주체 −1.58조 = 기타법인 +1.58조

코스피 주체별 — 전일 vs 당일 (억원)

특수 차트 — 오늘의 거울상: 판 쪽 vs 산 쪽 (억원)

개인 −1,453 + 외인 −6,402 + 기관 −7,922 = **−15,777** ↔ 기타법인 **+15,773**. 시장의 모든 능동 주체가 팔았고, 그 물량을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며 받았다 — 8월 자사주 사이클에서 처음 나온 '단독 매수' 구조.

구분	전일 (8/28)	당일 (8/31)	변화
코스피 외국인	−17,586	−6,402	매도 축소 7일 중 6일 매도 — 오늘은 비차익 바스켓
코스피 개인	+4,242	−1,453	매수→매도 급락 저점에서 받지 않음 (V자의 주인공 아님)
코스피 기관	−2,842	−7,922	매도 확대 사모 −5,231·금투 −2,465 — 원전·전력기기 차익
코스피 기타법인	+16,163	+15,773	8일 연속 누적 +11.73조 · 유일 매수 주체
코스닥 개인	+980	+2,533	확대 장 후반 저가 매수의 주체
코스닥 외국인	−929	−551	매도 축소
코스닥 기관	−34	−2,014	매도 확대 금투 −1,869 — 제약·바이오·전기전자·기계

기관별 상세 (억원, 확정)

주체	코스피	코스닥
금융투자	−2,465	−1,869
투신(일반)	−265	+164
보험	+167	+10
연기금등	−357	−293
은행	+12	−11
기타금융	+217	+2
사모펀드	−5,231	−18
기타법인	+15,773	+24

해석

① **자사주의 역할 격상 — '완충기'에서 '유일 엔진'으로.** 8/20~28은 외인·기관 중 누군가는 사고 있었고 자사주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했다. 오늘은 능동 주체 셋이 전부 팔았고 자사주가 유일하게 샀다. 삼전 100조·하이닉스 40조라는 총량이 있어 지속은 가능하지만, **시장의 자생적 매수가 사라졌다**는 신호로도 읽어야 한다.

② **기관 −7,922억의 실체는 '긴 듀레이션 차익'.** 사모 −5,231억이 주도, 매도 업종은 원전·전력기기·전기전자. 금리 상승 국면에서 먼 미래 이익을 앞당겨 평가받던 섹터부터 정리 — 단 2차전지에는 기관이 들어왔다(엘앤에프·포스코퓨처엠). 기관 안에서도 '금리 민감 → 수주 확정'으로 자리바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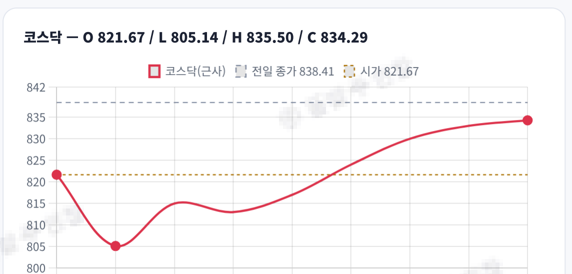
③ **개인은 V자의 주인공이 아니었다.** −1,453억 — 오전 급락에서 받지 않고 오후 반등에서도 매수 전환 안 함. 코스닥에서만 +2,533억(장 후반 저가 매수). 8월 내내 '외인이 팔면 개인이 받는' 구도가 오늘은 작동하지 않았고, 그 자리를 자사주가 메웠다.

프로그램 매매 (차익/비차익)

📋 **정성 확인 · 수치 대기** — 리포트: "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크게 출회 — 개별 기업의 실적 훼손보다 금리 불확실성에 대응한 지수 비중 축소 성격". 지난 판의 질문(바스켓 vs 종목)에 대한 첫 답: **오늘은 바스켓.** 8/26~31 4일치 확정 수치는 [2781]·수급 브리핑 마감판 수신 시 소급.

기타법인 순매수 8일 연속 (억원)

breadth — 전일 vs 당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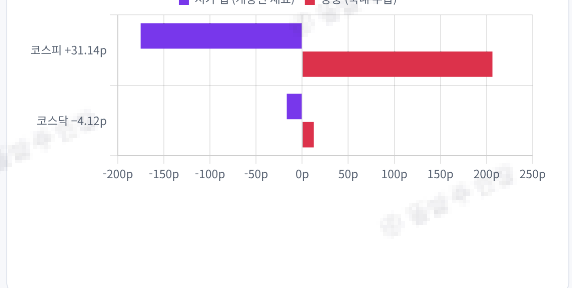
"지수≠시장" 5번째 — 이번엔 압축. 8/28은 하락일에 642개가 올랐고(확산), 오늘은 상승일에 490개가 내렸다(압축). 장중에는 양 시장 하락 종목이 1,800개 안팎까지 늘었다가 종가 기준 코스피 366:490·코스닥 749:889로 마감 — 지수보다 체감이 훨씬 나쁜 날. 순환매의 연료(장기금리 안정)가 잭슨홀로 끊기자, 자금은 '넓게 도는' 대신 '확실한 두 곳(반도체·2차전지)'으로 모였다.

SECTION 03

장중 궤적 — 세 번째 V자, 그리고 가장 큰 갭을 지운 날

갭 분해: 코스피 +31.14p = 갭 −175.30p + 장중 +206.44p — 갭을 장중이 역전한 세 번째 사례이며 갭 크기로는 최대(8/21 −92.6 · 8/25 −161.0 · 8/31 −175.3). 저점 6,547.76(−3.55%)에서 종가까지 +272.26p, 종가 6,820.02는 고가 6,820.10과 0.08p 차이 = 사실상 고가 마감. 코스닥 −4.12p = 갭 −16.74p + 장중 +12.62p — 저점 805.14(−3.97%)에서 +29.15p 복원, 역전에는 4.1p 부족.

코스피 — O 6,613.58 / L 6,547.76 / H 6,820.10 / C 6,820.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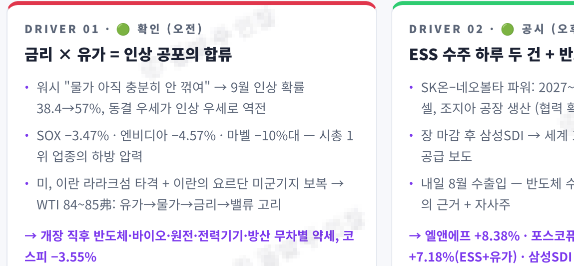


- **09:00–09:30** 6,613.58 → 6,547.76 저점 — −175p 갭다운 후 추가 하락 — 워시 매파(9월 57%) + SOX −3.47% · 중동 충돌 재개, 업종 무차별 약세
- **10:00–12:00** 6,690 → 6,640 횡보 — 1차 반등 후 재차 눌림 — 미 장기금리 진정(30Y +0.2bp) 확인하며 매도 강도 완화
- **13:00–15:30** 6,690 → 6,820.02 — SK온 9GWh ESS 계약 + 반도체 수출 기대 + 자사주 — 오후 내내 우상향, 고가 마감

코스닥 — O 821.67 / L 805.14 / H 835.50 / C 834.29

- **09:00–09:30** 821.67 → 805.14 저점 — −3.97% — 코스피보다 깊은 낙폭 (금리 민감 성장주 비중)
- **10:00–12:00** 813~817 바닥 다지기 — 반등 시도 약함 — 기관 매도(제약·바이오·전기전자) 지속
- **13:00–15:30** 824 → 834.29 — PCB·반도체 소부장·2차전지 저가 매수 — 개인 +2,533억, 낙폭 대부분 복구

갭 vs 장중 기여도



저점 높이기 3단 + V자 3연속 (코스피)

일자	시가 갭	장중	저점	비고
8/19	−341.1	−55.3	6,400.81	사이드카 급락 (역전 없음)
8/21	−92.6	+153.0	–	첫 역전
8/25	−161.0	+206.8	6,408.82	두 번째 역전 · 저점 재시험
8/31	−175.3	+206.4	6,547.76	세 번째 역전 · 최대 갭 · 저점 +139p 상향

갭은 커지는데(해외 충격 강도↑) 장중 역전 폭은 유지되고(국내 '받는 손' 유지) 저점은 올라간다 — 구조적으로는 바닥 구간의 전형. 단 오늘의 '받는 손'이 자사주 단독이라는 점이 8/25(삼각편대 +3.95조)와의 차이.

SECTION 04

섹터 인과 지도 — 오늘의 동인 3개

총평: 오전과 오후의 동인이 달랐다. 오전은 **금리(워시)와 유가(중동)가 한 방향(인상)으로 합쳐진 무차별 매도**, 오후는 **ESS 수주(SK온)·반도체 수출 기대·자사주가 만든 두 업종 압축 매수**. 그 사이에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'먼 미래 이익' 섹터(전력기기·원전)만 회복하지 못했다.

DRIVER 01 · 🟢 확인 (오전) — 금리 × 유가 = 인상 공포의 합류
- 워시 "물가 아직 충분히 안 꺾여" → 9월 인상 확률 38.4→57%, 동결 우세가 인상 우세로 역전
- SOX −3.47% · 엔비디아 −4.57% · 마벨 −10%대 — 시총 1위 업종의 하방 압력
- 미, 이란 라라크섬 타격 +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보복 → WTI 84~85弗: 유가→물가→금리→밸류 고리

→ 개장 직후 반도체·바이오·원전·전력기기·방산 무차별 약세, 코스피 −3.55%

DRIVER 02 · 🟢 공시 (오후) — ESS 수주 하루 두 건 + 반도체 수출 기대
- SK온—네오볼타 파워: 2027~31년 5년 9GWh LFP 파우치 셀, 조지아 공장 생산 (협력 확대 시 최대 18GWh)
- 장 마감 후 삼성SDI → 세계 1위 ESS 업체 선그로우에 LFP 공급 보도
- 내일 8월 수출입 — 반도체 수출 호조 기대가 오후 투톱 매수의 근거 + 자사주

→ 엘앤에프 +8.38% · 포스코퓨처엠 +7.62% · SK이노베이션 +7.18%(ESS+유가) · 삼성SDI +1.22% / 하이닉스 +1.27% · 삼전 +1.17%

DRIVER 03 · 🟢 정책 → 🔴 역행 — 전력기기 규제 호재를 금리가 삼켰다
- 미, 외국산 전력망 장비 규제 국가비상사태 — 변압기·인버터·BESS·UPS·제어시스템: 미국 생산기반 보유 기업엔 중장기 호재
- 그런데도 −6%: 이 종목들은 몇 년 뒤 수주·이익을 앞당겨 평가받아 온 쪽 — 금리 상승 시 할인 폭이 가장 큼
- 최근 급등으로 밸류 부담 누적 → 중장기 호재보다 단기 차익이 먼저

→ 두산에너빌리티 −6.46% · 효성중공업 −6.03% · HD현대일렉트릭 −4.05% · LS ELECTRIC −3.26%

업종/그룹	대표 등락	확인된 이유	근거
2차전지 (ESS)	+1.2~+8.4%	SK온 9GWh LFP 계약(공시) + 기관 유입 + 장후 삼성SDI 선그로우 보도	🟢 공시
반도체 부품	+2.6~+7.4%	AI 서버 기판·MLCC·전장부품 가격 상승·공급 부족 기대 — 메모리와 부품 '따로 노는' 사흘째	🟢 확인
반도체 대형주	+0.9~+1.3%	자사주(기타법인) + 내일 수출 기대 — 오전 관세·차익 매도를 오후 역전	🟡 정황
자동차	+0.8~+2.0%	외인 매수 상위 — 글로벌 수요 + 피지컬 AI·로봇 기대, 소각 실행일	🟢 수급
삼성바이오로직스	+2.15%	유증 급락 하루 만 되돌림 (증자 규모 약 3.9조로 보도)	🟡 정황
전력기기·원전	−3.3~−6.5%	금리 상승 → 장기 이익 할인 + 밸류 부담 차익 (미 규제 호재는 미반영)	🟢 금리
방산	−4.75%	한화에어로 — K9 스페인 계약·미 방산 증산론에도 긴 듀레이션 차익	🟡 정황
바이오 (코스닥)	−1.1~−3.9%	알테오젠 키트루다SC 첫 마일스톤에도 하락 — 기관 제약·바이오 매도, 대형주 대체 수요 이탈	🟡 수급
금융·보험	−0.7~−3.2%	외인 매도 업종 — 이틀 랠리 후 차익, 개별 뉴스 없음	🟡 정황

근거 등급: 🟢 정책·공시·실적·보도로 직접 확인 / 🟡 수급·정황만 있고 개별 뉴스 없음 / ⚪ 이유 미확인

SECTION 05

섹터 자금 지도 — 유입과 이탈

돈이 들어간 업종 ▲ (대표 종목 등락 %)

돈이 빠진 업종 ▼ (대표 종목 등락 %)

주도 섹터 판정: AI 3축이 갈라졌다 — **반도체·배터리는 복귀, 전력은 탈락.** 같은 'AI 인프라'라도 지금 매출이 잡히는 쪽(메모리·부품·ESS 셀)과 몇 년 뒤 수주로 평가받는 쪽(전력기기·원전)이 금리 앞에서 정반대로 움직였다. 나흘 연속 주도 교체(원전·건설 → AI 3축 → 실적 소비재·금융 → 반도체·2차전지)이나, 오늘은 '회전'이 아니라 '수축'이다.

한 줄 요약: 오늘 지도의 펜은 워시가 쥐었고, 색칠은 SK온과 자사주가 했다 — 금리가 오르는 날, 시장은 '먼 이익'을 버리고 '가까운 계약'으로 도망쳤다.

SECTION 06

두각 종목 — 최근 2일 내 개별 뉴스

코스피

종목	등락	개별 뉴스 / 주제
LG전자	+7.44%	직접 뉴스 없음 전장·AI 서버 부품 가격 상승 기대, 부품주 차별화
포스코퓨처엠	+7.62%	8/31 SK온 ESS 계약 → 소재 밸류체인, 기관 유입
SK이노베이션	+7.18%	8/31 자회사 SK온 9GWh LFP 계약 + 유가 85弗 (이중 호재)
LG이노텍	+5.07%	직접 뉴스 없음 AI 서버용 기판 공급 부족 기대
삼성전기	+2.60%	8/27~ MLCC 인상 기대 — 사흘 연속 상승
삼성바이오로직스	+2.15%	8/28~31 유증 규모 약 3.9조 보도 — 급락 하루 만 되돌림
기아 · 현대차	+2.03 / +0.75%	8/31 현대차 자사주 소각 실행일 — 외인 매수 상위
두산에너빌리티 · 효성중공업	−6.46 / −6.03%	8/31 미 외국산 전력망 장비 규제(중장기 호재)에도 금리 차익 — 재료 역행
한화에어로스페이스	−4.75%	8/31 스페인 K9 자주포 수출 실행계약에도 하락 — 재료 역행

코스닥

종목	등락	개별 뉴스 / 주제
엘앤에프	+8.38%	8/31 SK온 ESS 계약 → 양극재 기대, 기관 유입 (이틀 연속: +3.77 → +8.38)
알테오젠	−3.91%	8/31 키트루다SC 상업 판매 첫 마일스톤 수령에도 하락 — 재료 역행
HLB	−1.11%	직접 뉴스 없음 기관 바이오 매도
에스피소프트 · 쿠콘	미수신	전일 +29.90 / +23.85% 급등주 익일 등락 자료 미수신 — 과속 검증 이월
상한가	8종목	종목명 자료 미수신 ([0785] 수신 시 소급)

재료 역행 3건이 오늘의 특징. 두산에너빌(규제 호재)·한화에어로(K9 계약)·알테오젠(마일스톤) — 모두 당일 호재가 있었는데 내렸다. 공통점은 '먼 미래 이익'으로 평가받는 긴 듀레이션 종목이라는 것: 금리가 오르는 날에는 재료의 크기보다 이익의 시점이 주가를 결정한다. 어제 뉴스판 교훈("파는 쪽인가 사는 쪽인가")에 이어 오늘의 추가 질문 — "그 이익은 언제 오는가?".

SECTION 07

파생 포지션 & 변동성

VKOSPI 종가 추이

포지션 판독 (누적, 만기 9/10 · 차트 판독 근사)

① **칼라 해체 — 외인이 방어를 풀었다.** 콜 누적 ≈−50%(8/27) → **+28%**(콜 매도 청산 → 순매수 전환), 풋 누적 ≈+355% → **+135%**(하방 헤지 대폭 축소). 잭슨홀을 앞에 걸어둔 '상단 팔고 하단 지키는' 칼라를 이벤트 통과와 함께 걷어냈다 — **파생은 낙관 쪽으로 기울었다.** 기관 풋 −290 → −65로 대칭 청산.

② **지수선물:** 외인 누적 ≈+7.2조로 소폭 확대 유지 — 현물 −6,402억 비차익 매도와 병행. "현물은 바스켓으로 줄이고 선물 롱은 유지" = 방향 비관이 아니라 이벤트 구간의 지수 익스포저 조절. 기관 ≈−6조 대칭.

③ **VKOSPI ≈46 — 장중 −3.55% 급락일에 오히려 하락.** 8/19 고점 61 → 46. 시장이 오전 급락을 '이벤트 소화'로 읽었고, 오후 V자가 그 판단을 확인해 줬다. 수치는 공표 시점 근사.

SECTION 08

매크로 · 원자재 — 8월 마지막 날의 좌표

원/달러 1,368.60
−3.9원. 장중 1,370원 하회 — 약 1년 1개월 만 최저. 미 금리·달러 [illegible] 강세 유지 — [illegible] 원화가 계속 강한 것은 '환전 이탈 아님'의 3일째 확인.

국고채 3Y 3.788%
10년물 4.274% — 소폭 상승 마감.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은 국내 금리 상승 요인이지만 원화 강세와 외국인 채권 수요가 상승폭을 제한. 한은 연속 인상 + 워시 매파 = '양쪽 조임'이 현실화됐으나 장기물은 통제 범위.

유가 · 금 WTI $85+
85弗 재상회 — 미·이란 직접 충돌 재개, 호르무즈 통항량 전쟁 이전 크게 하회 + 유조선 기뢰 충돌 주장. 금은 $4,500대 — 금요일 −3.2%(4,511) 급락 후 미 금리 부담 vs 지정학 안전자산 수요가 맞서는 구간.

8월 월간 결산 (확정)

	7/31 종가	8/31 종가	월간	8월 고점 / 저점	비고
코스피	6,595.45	6,820.02	+3.40%	7,216.62 / 6,080.25	진폭 1,136p(18.7%) — 사이드카 급락(8/19)·+5.89% 대반등(8/20)·V자 3회를 한 달에 담은 달. 월간 대금 516.9조(7월 대비 −36%)
코스닥	719.76	834.29	+15.91%	879.29 / 705.07	코스피의 4.7배 상승 — 주간(8/24~28 +4.55%)에 이어 월간도 코스닥의 승리. 단 8/31 비중 16.4%로 마감

SECTION 09

핵심 쟁점 — 오늘의 본질 4가지

① 자사주 없이도 버티는가 — 매수 주체 단일화의 시험
3주체 −1.58조 = 기타법인 +1.58조. 8월 자사주 사이클에서 처음으로 자사주가 '유일한 매수'가 됐다. 총량(삼전 100조·하이닉스 40조)은 충분하지만, 시장의 자생적 매수가 사라진 날의 +0.46%는 지속성이 검증되지 않았다. **확인 지점: 자사주 공백일(14:30 되밀림 리듬)에 외인·기관 중 누가 받는가.**

② 저점은 오르는데 폭은 좁아진다 — 기술 vs 체감의 괴리
6,400.81 → 6,408.82 → 6,547.76의 저점 높이기와 V자 3연속은 바닥 구간의 전형. 그런데 breadth는 366:490, 장중 하락 1,800개 — 압축 장세는 지수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'다음 순환의 연료'를 소모한다. **확인 지점: 상승일 상승 종목 비율 50% 복귀.**

③ ESS 축의 등장 — EV 없이도 배터리가 오르는가
SK온 9GWh(장중) + 삼성SDI 선그로우(장후), 하루 두 건. 전기차 수요 정체 속에서 데이터센터·전력망용 ESS가 새 수요처로 확인됐고 시장은 소재(엘앤에프·포스코퓨처엠)부터 반응했다. 8/29 시리즈에서 세운 'EV→ESS 성장축 이동' 프레임의 첫 수주 실증. **확인 지점: 내일 SDI 선그로우 반응 + 추가 수주 공시 + LGES ESS 흑자전환.**

④ "그 이익은 언제 오는가" — 금리가 고른 승자와 패자
같은 AI 인프라에서 메모리·부품·ESS 셀(가까운 매출)은 오르고 전력기기·원전(먼 수주)은 −6%. 미 전력망 규제 호재·K9 계약·마일스톤 수령이 모두 하락으로 답했다 — 금리 상승일엔 재료의 크기보다 이익의 시점이 우선. 워시 매파 + 한은 연속 인상 = '양쪽 조임'이 섹터 안에서 듀레이션 순으로 값을 다시 매기는 중. **확인 지점: 이번 주 미 고용 5연전 후 9월 인상 확률.**

SECTION 10

주요 뉴스

해외 · 지정학
- **워시 연준의장**(잭슨홀) — 인플레 2% 목표 향해 충분히 둔화 안 됨 → 9월 인상 확률 38.4→57%
- **미, 이란 라라크섬** 로켓 발사대·기뢰 부설 병력 타격 / 이란, 요르단 내 미군기지 보복 — 한 달여 만 군사 충돌 재개
- **미 외국산 전력망 장비 규제** 국가비상사태 — 변압기·인버터·BESS·UPS·제어시스템 포함
- **미군 수뇌부**, 이란전 장기화 시 유럽·태평양 대응 여력 약화 경고 — 패트리엇·THAAD 재고 감소, 방산 증산 필요론
- **트럼프**, 베네수엘라산 원유 전략비축유 재충전 활용 계획 — 노후 설비·중질유 저장 적합성이 변수
- **중국 8월 제조업 PMI** 개선됐으나 기준선 하회 지속 / **북한** "핵보유국 지위 불변"

국내 정책 · 경제
- **한미 에너지 안보 협력** 강화 — 전력망·ESS·핵심 공급망 포함
- **원/달러 1,368.60** — 1년 1개월 만 최저, 월말 네고·연속 인상
- **내일 아침 8월 수출입** — 반도체 수출 확인이 오늘 오후 매수의 근거

기업 · 계약
- **SK온**, 미 네오볼타 파워와 5년 9GWh LFP 파우치셀 공급 (조지아 공장, 최대 18GWh 확대 가능)
- **삼성SDI**, 세계 1위 ESS 업체 선그로우에 LFP 공급 보도 (장 마감 후)
- **SK하이닉스**, 일본 내 합작 메모리 생산시설 검토(전력·용수 요건) + HBM4E 베이스다이 일부 인텔 위탁 검토 — TSMC 의존도·파운드리 비용 절감
- **한화에어로스페이스**, 스페인 K9 자주포 수출 실행계약 — 유럽 운용국 확대, 탄약·정비 후속 사업
- **VLCC 운임 급등**으로 중고선 품귀 — 프론트라인 사상 최대 분기 이익, 신조 발주 연결 기대
- **알테오젠**, 키트루다SC 상업 판매 첫 마일스톤 수령 / **삼성바이오로직스** 유증 규모 약 3.9조 보도

SECTION 11

관전 포인트 — 일정이 몰린 한 주

다음 핵심 이벤트 심층 — 내일 아침 8월 수출입 (반도체 수출)

오늘 오후 투톱 반등의 명시적 근거가 '내일 반도체 수출 숫자가 좋을 것'이라는 기대였다. 8/1~20 반도체 수출은 +198.8%(역대 최대)였으므로 시장의 눈높이는 이미 높다.

- **사상 최대급 확인** — 오후 매수 정당화 → 투톱 추가 반등, 자사주 외 매수 주체(외인) 복귀 여부가 관건. 6,900 재도전
- **호조이나 눈높이 부합** — "이미 반영" — 8/28 엔비디아 선반영 패턴 재현 위험. 지수는 자사주 페이스에 의존, breadth 압축 지속
- **눈높이 미달** — 오후 매수 근거 붕괴 → 오늘 V자의 되감김. 저점 6,547 재시험 여부가 바닥 구간 판정을 좌우

해석 기준: 헤드라인 증가율보다 **일평균 수출액과 메모리 단가 기여**. 확실성 법칙(기대→미달 시 되감김) 5번째 표본 후보.

확인 일정

일자	일정
9/1 (화) ★	한국 8월 수출입(아침) · 미 ISM 제조업·JOLTS(밤) · 애플 신임 CEO 취임 · Dell 실적
9/2 (수)	ADP 민간고용 · **브로드컴 실적(장후)** — AI 마진 논쟁 4번째 (NVDA·MRVL 이어)
9/3 (목)	ISM 비제조업
9/4 (금) ★	미 8월 고용보고서 — 워시 "물가>고용" 이후 첫 고용, 9월 인상 확률(57%)의 분수령
수시	미·이란 추가 군사행동 / WTI 85弗 안착 여부 / 삼성SDI 선그로우 반응 / 수급 소급분(비차익 8/26~31·[0785]·예탁금)

가장 중요한 확인 지표 (다음 판 판정 기준):
① **8월 반도체 수출 채점** — 사상 최대급/부합/미달 3분기 + 투톱 반응 (확실성 법칙 5번째 표본 후보)
② **자사주 외 매수 주체 복귀** — 외인 현물 매도 진정(7일 중 6일 매도 종료) 또는 기관 순매수 전환: "자사주 없이도 버티는가"
③ **breadth 정상화** — 상승일 상승 종목 50% 복귀 (오늘 40%) · 압축 → 확산 전환 여부
④ **ESS 후속** — 삼성SDI 선그로우 공급 반응 + 추가 수주 공시 (EV→ESS 프레임 2일차)
⑤ **대금 지속** — 코스피 24조 이상으로 5일 이평 우상향 유지 · 코스닥 비중 18% 복귀
⑥ **WTI 85弗 · 9월 인상 확률 57%** — 유가→물가→금리 고리의 방향, 이번 주 고용 5연전
⑦ [이월] 비차익 소급(8/26~31)·[0785]·예탁금 / 코스닥 급등주(에스피소프트·쿠콘) 익일 검증 / 현대차 소각 실행 공시 / 8월 물가·명목GDP(9월 초)

ⓒ 본 콘텐츠의 제작 및 모든 권리는 똥발 주인장에게 있습니다. 사전 동의 없는 무단 복사·전재·재배포 및 2차 가공을 금합니다.
본 콘텐츠는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기준: 지수·수급·거래대금·OHLC는 2026-08-31 장마감 확정치(거래대금 집계 구간 6/1~8/31, FnGuide 지수추이 기준). 장중 궤적 곡선은 5분 차트 판독 + 공식 OHLC 고정점의 근사. 파생 누적·VKOSPI는 리포트 차트 판독 근사(공표 시점 상이 가능). 프로그램(차익/비차익) 수치·[0785]·예탁금은 미수신 — 수신 시 소급 갱신. 삼성전자·SK하이닉스 등락은 마감 확정치(+1.17%/+1.27%) 기준, 리포트 본문 일부 표기(+0.77%/+1.14%)는 시차 수치로 판단. STT 교정: 에르셀릭 트릭→LS ELECTRIC, 국기와시→9GWh, 나라크 섬→라라크섬, 아벨→마벨, 나사주→자사주. 점선 밑줄 용어에 마우스를 올리면 쉬운 설명이 나옵니다.